

세상사 돋보기

대원군은 왜 3명이었을까



고운석주필

대원군은 왜 3명이었을까?

조선시대 대원군하면 우리는 보통 고종의 아버지와 명성황후의 시아버지인 흥선 대원군을 떠올린다. 하지만 덕흥 대원군이나 전계 대원군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대원군이란, 직계가 아닌 방계 혈족에서 왕이 나올 경우 왕의 아버지를 숭상하는 뜻에서 봉하는 호칭이었다.

덕흥 대원군은 선조의 아버지인 전계 대원군은 철종의 아버지였다.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된 인조의 아버지도 처음엔 대원군으로 봉해졌으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따라 많은 논쟁 끝에 인조 10년에 격을 더 높여 원종

으로 추서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왕조에서 대원군이 된 사람은 모두 3명인데 그 가운데 흥선 대원군만이 살아생전에 대원군이 되어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다.

원래 군(君)은 왕의 아들, 곧 왕자의 호칭에 따라 붙은 칭호였다. 왕자가 왕비의 소생일 경우는 대군(大君) 후궁의 소생일 경우는 그냥 군으로 불렀다. 양녕대군, 영창대군, 광해군 같은 호칭이 그런 예다.

그 밖에도 드물지만 왕실의 공신에게 군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기도 했으며, 대원군처럼 왕의 아버지, 부원군처럼 왕비의 아버지에게도 이 호칭이 따라 붙었다.

한 나라의 수령을 일컬어 군주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군은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다. 그러나 왕조의 시대가 끝나면서 '군'의 지위도 심하게 격하되었다.

오늘날 손아래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김 군, 박 군하는 호칭은 백 년 전만 하더라도 '목숨'을 걸지 않는 한 감히 쓸 수 없는 말이었다.

나주시의회 제221회임시회 개최

나주시의회(의장 김선용)가 지난 7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새해 첫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이며, 10일부터 13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나주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13일부터 14일

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거친 이후 17일 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 안건을 의결,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일반안건,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심의가 예정돼 있다.

기고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황길진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나주소방서는 겨울철을 맞아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어 화재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화재는 화목보일러 3758건, 열선 3016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393, 가정용보일러 2238건 순으로 나타나 난방기기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3월까지 많이 발생하였고,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66%(2,493건)을 차지했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제품설치 요령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안전한 제품사용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 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주의와 그에 대처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시공이 필요하다. 문제는 비용절감을 위해

시공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건축하거나 질 낮은 단열재를 사용해 시공하는 데 있다.

불티가 날리지 않는 구조의 아궁이와 연통을 설치해야 하지만, 비전문가에 의한 시공은 화재의 위험성을 높인다.

둘째, 한꺼번에 많은 양의 목재를 연소시키지 말고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많은 양의 목재를 한 번에 투입할 경우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주변 가연물(목재, 종이류)과 만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불일을 보기 위해 목재를 넣어두고 자리를 비우면 자칫 집을 다 태울 수도 있다.

셋째, 보일러 주변에 목재나 종이류 등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해 불티가 많이 날리며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쉽게 과열돼 주변 가연물질에 붙어 옮겨 붙기 쉽다.

넷째, 타고 남은 재는 안전하게 처리한다. 타고 난 재를 그대로 버리거나 방치하면 잿더미에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잿더미에 물을 뿌리거나 흙을 덮어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해 유사시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곳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도 최소 1대 이상 비치하는 등 소방대 도착 전 자체 진화능력을 높인다면 한층 더 안전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을 넘는 만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 드린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할 가족을 모십니다

'빛가람신문'은 '지역민의 소통' '지역 주민 화합' '지역 사회 발전'을 모토로 자치시대의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족처럼 함께 일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분야 : 객원·시민기자 ■ 모집인원 : 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 접수기간 : 수시 모집(채용시 마감)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E-mail 접수 (cws2344@hanmail.net)

BGRJ 빛가람신문
자매지_굿뉴스피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52-47 TEL : (061) 337-4005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백운동) TEL : (062) 673-5255
E-mail : cws2344@hanmail.net

주간 **BGRJ 빛가람신문**
자매지_굿뉴스피플

발행·편집인·대표이사 최 왕 식 부사장 김 재 옥

광주-다-00264
2014년 11월 5일 등록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77 다성빌딩 1층
TEL : (061) 337-4005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백운동)
TEL : (062) 673-5255
FAX : (062) 674-5255
E-mail : cws2344@hanmail.net
www.bitgaramnews.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1년 6만원
농협 : 301-0160-7645-01
(주)빛가람신문

주 필 고운석
대 기 자 김홍식, 방수진
논설·편집위원 박영주, 김재용
정 인

편 집 국 장 박은정
취 재 국 장 김영춘, 박양수
기 자 김근영

총 무 팀 장 이미경
디자인 팀 장 이민영

인 쇄 남도프린테크